

◇골성 육종에 의한 전이성 폐암 절제술

박종호, 백희중, 조재일

원자력병원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골성 육종의 경우 다른 곳으로의 전이는 드문 반면 폐에로의 전이는 매우 흔하며, 이는 장기 생존의 최대의 걸림돌이기도 하다. 이의 해결 방법중의 하나로 전이성 폐암 절제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수술 전 컴퓨터 흉부 단층촬영의 정확도, 전이성 폐암 절제술의 효용성 그리고 술 후 생존률 등을 알아보는데 있었다.

방법 : 1992년부터 1997년 사이에 원자력병원에서 골성 육종 진단을 받은 환자 중 폐장으로 전이가 있으면서 전이성 폐암 절제술을 시술 받은 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기간동안 폐장으로의 전이는 있었으나 전이성 폐암 절제술을 받지 않은 환자들[stage IIB-47명, stage III-15명]과 각각의 생존률을 비교하여 보았다.

결과 : 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9례의 수술이 시행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18.4세, 남녀비는 19:6 이었다. 술 전 병기는 16명이 stage IIB 이었고, 9명이 stage IIIB 이었다. 폐절제술은 대부분 췌기 절제술을 하였으며, 1례의 일측 전폐적출술과 1례의 폐엽 절제술이 시행 되기도 하였다. 25례의 수술에서 완전 절제술이 가능 하였다. 전이성 폐암의 분포는 우상엽 [11.8%], 우중엽 [13.8%], 우하엽 [26.6%], 좌상엽 [20.1%], 좌하엽 [27.7%] 이었으며 수술 1례당 16.3개의 종양을 적출 하였다. 술 전 실시한 흉부 컴퓨터 촬영의 민감도 [sensitivity]는 45.7% 이었으며, 특이도 [specificity]는 76.0% 이었다. 전체의 중앙 생존기간은 2.8년 이었으며, 5년 생존률은 46.7% 이었다. 병기별로 나누어보면 stage IIB [n=16]군은 아직까지 중앙 생존기간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5년 생존률은 63.6%이었던 반면에, stage IIIB [n=9]군은 중앙 생존기간이 2.1년, 그리고 5년 생존률은 0% 이었다. [log-rank test, $p > 0.1$] 전이성 폐암 절제술을 받지 않은 47명의 stage IIB 환자들의 중앙 생존기간은 7개월에 불과 하였다. [log-rank test, $p < 0.0001$] 역시 마찬가지로 절제술을 받지 않은 15명의 stage III 환자들의 중앙 생존기간도 7개월에 불과 하였다. [log-rank test, $p=0.018$]

결론 : 골육종에 의한 전이성 폐암의 치료에 완전 절제술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전이성 폐암 절제술 대상에서 벗어난 stage III 환자에서도 도움이 될 가능성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책임저자:조재일(원자력병원 흉부외과) 발표자:박종호(원자력병원 흉부외과)